멀어지는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부담 어려워"

카드사 수수료 '2.2~2.3%' 가량
보험사 제시 '0.9~0.99%' 수준
협상 결렬에 하반기로 논의 연기

〈보험료 카드남부 비중〉 /자료=금감원

연도	보험사전체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
2013년	119조4407억원	8.2%
2014년	166조6918억원	8.3%
2015년	177조2587억원	8.9%
2016년	187조2101억원	9.7%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보험료 카드납부가 요원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 만이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액이 큰 저축성보험 등은 결제 서비스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험-카드업계 간 수수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올해로 카드납부 확대 방침이 넘어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입 비중은 전체의 9.7%에 그친다.

업계 간 이견이 큰 부분은 수수료율.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될 경우 2.2~2.3% 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 없이 이 같이 높은 수수료율은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납부 확대 당시 보험사가 제시한 적정 수수료율은 국세나 국민연금 납부 시 책정되는 0.9~0.99% 수준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중소·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 2.2%대에서 0.2%포인트 낮춘 2.0%를 제시했다.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시 협상을 주도한 금감원은 '백기'를 들며 올 하반기로 논의 재개를 연기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최근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에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 및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을 때 2회차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등 부당 운영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사는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월 납입일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토록 한 경우도 적발됐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불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에 대해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관련 사례를 자체 점검한 후 보고토록 요청했으며 협회는 회원사들과 모여 당국 방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 납부를 받는 상품에서도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견돼 이를 시정토록 했다"며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위해 보험사나 카드사와 의견을 나누고 독려하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 시 신용·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 결제 시 내야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신용 및 전자결제 등을 회피해왔다"며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車 보험, 1분기 손해율 악화에 '적자'

삼성·현대·악사 3개사만 흑자 기록

지난해 1분기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보험이 적자로 돌아섰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의 1분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4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7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이익을 낸 곳은 삼성, 현대, 악사 등 3개사에 불과했다.

적자 원인은 손해율 악화다.

작년 1분기 78.2%에 머물렀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올해 들어 82.6%로 높아졌다. 보험금 지급기준 인상과 2월 초 강설·한파가 겹치면서 발생손해액은 7.3% 증가한 반면 경과보험료는 1.6%만 늘었다.

월별로는 1월과 2월이 각각 84.9%, 86.6%로 겨울철 상승했다가 봄철을 맞아 3월 76.7% 하락했다. 그러나 4월들어 81.4%(잠정치)로 다시 상승했다.

시장규모도 역성장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감소했고, 보험사 간 보험료 인하 경쟁이 심화된 탓이다.

대형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0.6%로 2016년 1분기 78.9%, 2017년 1분기 80.4%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경쟁 심화와 자동차 정비수가 등 비용상승으로 올해는 손해율 상승 및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누수 방지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DGB금융지주 김태오號 출항

신뢰회복·조직안정 '최우선 과제' 눈길

'소통·성과·인재' 경영의지 밝혀

DGB금융지주 김태오 호(號)가 출항했다. 이로써 전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문제 등으로 홍역을 앓던 DGB금융도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그룹은 3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제3대 DGB금융그룹 회장에 김태오 내정자(사진·전 하나HSBC생명 사장)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대구 북구 칠성동 제2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50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100년 비전을 꿈꾸자"라고 밝혔다.

그는 DGB Get Best(하나의 DGB, 신성장동력 창출, 신뢰받는 파트너, 일류 금융그룹)를 그룹 경영비전으로 제시하고 '소통, 성과, 인재' 3가지 큰 틀의 경영 의지를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김 회장은 "최근 위기 속에서 시장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도전과 경쟁을 요구한다"며 "책임 우선주의로 고통을 나누고 비전수립 전 과정에서 소통해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최우선 과제로는 조직 안정화와 시장의 신뢰회복 등이 꼽힌다. 박인규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데다, CEO(최고경영자)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조직 내부 정비도 필요한 상태다.

시장에선 김 회장이 그룹 출범 후 7년 만의 첫 외부 출신 수장인 만큼 DGB금융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꾸고 모범적인 지배구조와 경영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강화도 김 회장의 중점 과제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우선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8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하나 HSBC생명보험 대표이사를 거쳐 지난 10일 DGB금융지주 회장 최종후보로 선정됐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EB하나銀-경북대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맞손

KEB하나은행은 31일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와 '메이커 운동의 확산과 제조기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 개발해 공유하는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창작자(메이커)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일반 메이커를 위한 체험, 교육, 멘토링 ▲혁신아이디어 발굴 및 메이커 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제조 기반 스타트업의 시제품 개발 및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기술신탁'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하드웨어 스타트업(Hardware Start-up:첨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 기반의 신생 사업체)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고 이들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투자 연결 등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박지환 전무(사진 오른쪽)와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김현덕 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박지환 전무는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혁신융합기술을 경험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저축성 보험, 보험사 상품별 비용·수수료 '천차만별'

금융꿀팁 200선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적립된다. 그러나 이 비용과 수수료가 제각각이라 매월 같은 금액을 납입했다고 해도 어느 보험사나 상품을 선택했는 지에 따라 최종 적립금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님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 고려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시 비용절감 가능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등을 안내했다.

먼저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을 가입할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으로 적합하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일부 온라인 전용상품은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공제가 없어 고려해 볼 만 하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보험료 추가납입이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아 기본 보험료보다 적립률이 높다.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인 만큼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안상미 기자